그라비어인쇄용롤러 생산 국내 선두 자부

제판업계 최초 ISO 9002 인증 획득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 힘들다는데 공감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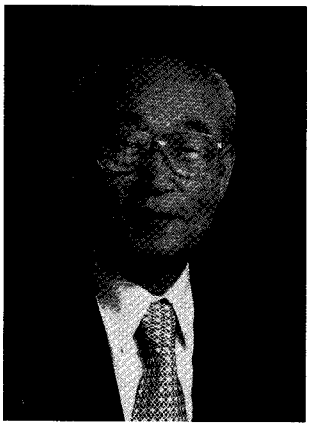
누구든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데 공감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고의 위치는 오직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만큼 그 자리에 올라서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 설립된 이래 오직 그라비어인쇄용롤러만을 생산해 오며 국내 최고의 위치를 지켜온 (주)대일산업의 지난 20년이 더욱 빛나는 것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주)대일산업 안산공장 전경



◀ 남정락 대표이사

"국내 그라비어인쇄용롤러 생산업체 중 규모와 품질면에서 최고임을 자부합니다"라는 남정락 대표이사는 (주)대일산업이 국내 제판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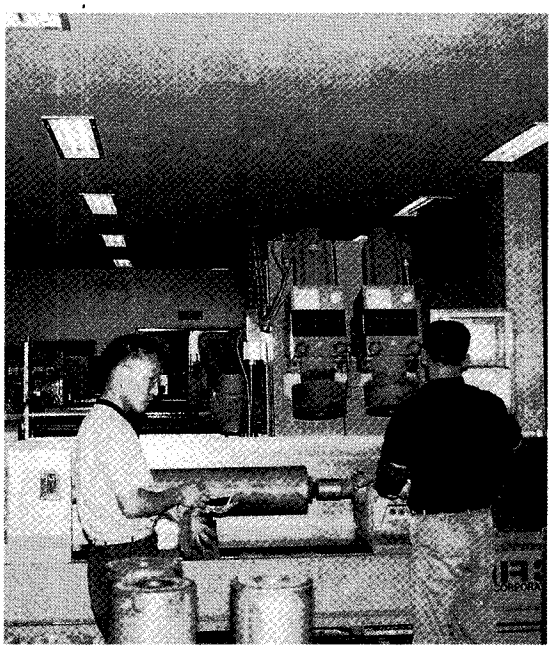
지난 9월 8일, 6개월간 전직원이 최선을 기울여 획득한 ISO 9002 인증도 남 사장이 가진 이런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내 제판업계에서는 아직 ISO 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판업계 자체적으로도 체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남 사장은 이번 ISO 9002 인증 획득 과정 역시 규모와 품질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업계의 선두에 서야한다는 의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성실'을 강조한다는 남 사장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제판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생산공정상의 어려움은 별로 기억되는 것이 없지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행정상의 규제가 매사에 연관돼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는 남 사장은 최근 들어서도 환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이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가지, 사내 청결을 강조하는 남 사장은 사무실과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밝히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며 (주)대일산업의 우수한 제품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내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총 60여명의 임직원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 (주)대일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한 설비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있는 (주)대일산업은 품질의 우수성을 업계에서 인정받으므로써 주로 수출을 하는 그라비어인쇄 업체들이 그 유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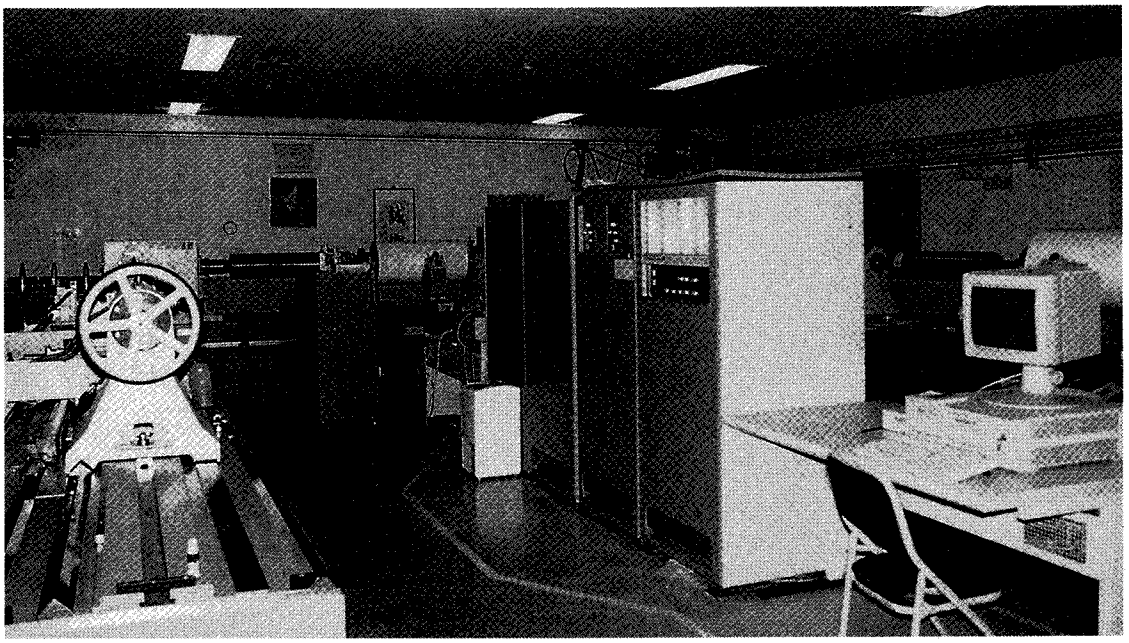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내수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더 정확하고 섬세한 그라비어인쇄용롤러를 생산하는 것이 제판업계의 가장 큰 목적일텐데, (주)대일산업은 해외 신기술의 도입은 물론,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전시회에 직원들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견,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므로써 견문을 넓히는데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주)대일산업은 직원들의 화합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내조가 중요하다는데 착안, 휴가기간동안 부부동반으로 직원들이 동남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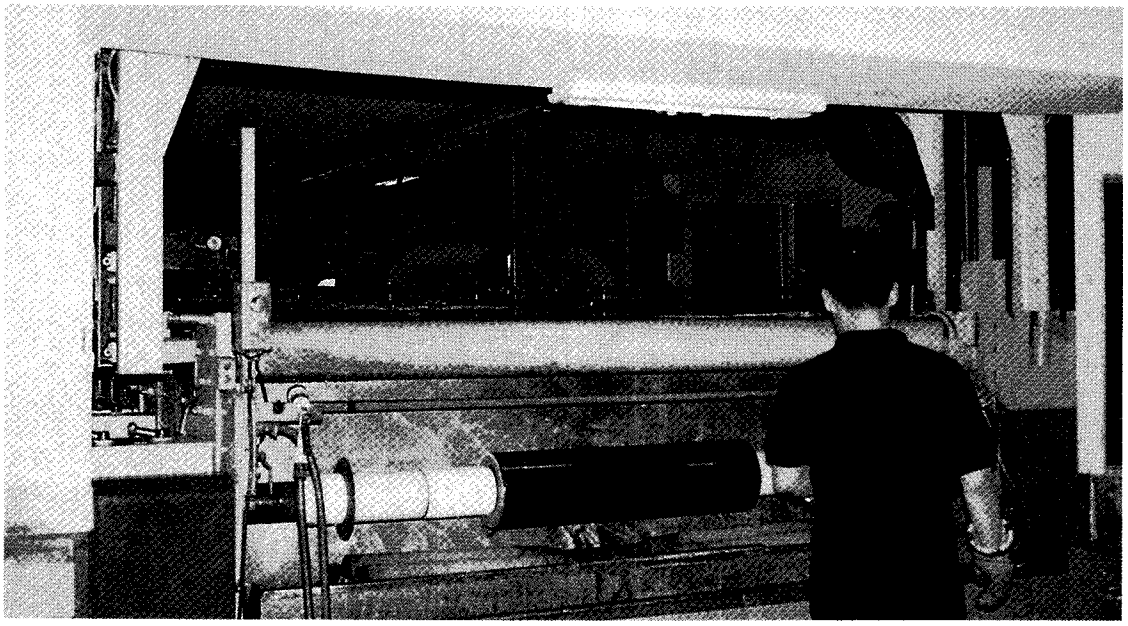
이를 통해 애사심을 높임은 물론, 가족적인 회사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업종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만큼 유사한 분야로의 확장을 꾀할만도 하지만, 오직 그라비어인쇄용롤러의 생산만을 고수하고 있는 (주)대일산업은 다른 분야로의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온 선두자리에서 업계를 리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대일산업은 롤러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단독폐수처리장을 설치해 환경부로부터 녹색업체로 지정받아 업계의 모범이 되었으며, 정교한 품질과 정확한 납기로 유저들로부터 최고에 적합한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



▲ (주)대일산업의 헬리오실 내부



▲ 동도금과 크롬도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설비

한편 지난 9월 8일, 동종업계 최초로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를 획득함과 동시에 세계 35개국 통합인증인 IQ NET을 획득한 (주)대일산업은 지난 3월 인증 준비를 시작해 6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인증을 획득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물론 ISO 매뉴얼과 다른 점이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내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는 구연진 생산이사는 인증획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규격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ISO 인증작업이 제판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떠한 기준도 없었고 이로 인해 일일이 (주)대일산업에서 모든 규격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번의 교육과 작업을 통해 규격을 만들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구 이사는 인증획득 후 전 직원이 제 손으로 일궈낸 결과를 통해 제판업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한층 더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라비어인쇄용롤러의 고급화를 위해 투자해 온 지난 20년간의 열정이 앞으로 다가올 더 긴 시간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는 (주)대일산업은 항상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다부진 일익을 담당하며 쉼없는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명쾌한 기업이다. ko

윤지은 기자